

<서평>

시적 역사, 역사적 시문

Claudine Ang, *Poetic Transformations, Eighteenth-Century Cultural Projects on the Mekong Plain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9.

최 병 욱*

영어로는 그럴 듯한데, 번역을 하자니 일일이 설명이 필요한 제목이다. 18세기 메콩 델타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이 가는 바가 있는지라 제목 한번 멋지게 잡았다고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니 난감하다. 제목이 갖는 문학성 때문이다. 우선, 'Poetic Transformations'를 보자. 시적 변환? 아니면 시 같은 변환? 시를 활용한 변환? 익숙함에 기대자면 시적 변환이라 번역할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 문제는 'Mekong Plains'다. 메콩 델타가 아니라 메콩 플레인즈란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그렇다면 대략 메콩 평원?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복수로 번역하면 더 생뚱맞다. 책 속에서 델타와 플레인즈, 리존즈(regions)가 마구 섞여 쓰인다. 마지막으로, 'Cultural Projects'는 암만 영어 사전을 뒤적여 보아도 문화(적) 기획 내지 설계라고밖에 번역할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 보아도 어색하며 개념이 도통 들어오질 않는다. 그럼 그냥 문화 프로젝트? 혹은 문화적 프로젝트?

* 인하대 사학과 교수, choibyungwookls@gmail.com.

제목뿐만 아니라 책을 구성하는 장절 제목들도 하나같이 문학적이다. 그래도 번역하기는 훨씬 용이하다. 책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 각각 ‘변경의 드라마(Drama on the Frontier)’ ‘서정시와 풍경(Lyrics and Landscapes)’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변경의 드라마’에서는 남국 조정의 관료 완거정(阮居貞, Nguyễn Cư Trinh 응우옌끄찐, 1716-1767)이 팡아이(Quảng Ngãi 廣義) 성(省)을 경영할 때 쓴 문답 형식의 장시(長詩) ‘승니문답(僧尼問答, 책에서는 베트남어 제목인 Sãi vãi)’을 분석하고 있고 ‘서정시와 풍경’에서는 하띠엔(Hà Tiên 河僊)의 주인 막천사(鄭天賜 Mạc Thiên Tứ, 1710-1780)가 하띠엔의 자랑할 만한 곳들에 대해서 쓴 열 개의 연작시 ‘하선십영(河僊十詠)’이 다루어진다. ‘승니문답’에 대한 분석은 세 개의 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의 유머와 정교의 오류(Frontier Humor and the Inadequacies of Orthodoxy)’ ‘현지어 속의 고전(The Classical in the Vernacular)’ ‘인간 감성의 병고(The Illness of Human Emotions)’가 각각의 제목이다. ‘하선십영’을 다루는 세 개의 장 제목은 다음과 같다. ‘풍경을 써서 문명화하기: 메콩 평원에서 명 유민들의 야심(Writing Landscapes into Civilization: Ming Loyalist Ambitions on the Mekong Plains)’ ‘서신을 통한 공개: 델타의 지리 정치적 실체들(Epistolary Expositions: Geopolitical Realities on the Delta)’ ‘중국인 거류지에 대한 베트남적 재형상화(A Vietnamese Reimagining of a Chinese Enclave)’

저자 끌로딘 양(Yale-NUS College 사학과 조교수)의 문학적 언어 구사 능력은 중국 고전 해석 실력과 맞닿아 있다. ‘승니문답’에는 고전 속의 수많은 인물, 지명, 사건이 등장한다. ‘하선십영’ 역시 그러하다. 시문 속 등장인물은 적지만 시어들이 기초하고 있는 고전 속 사례들이 많다. 저자는 그런 글자들의 배후에 있는 근거들을 일일이 찾아내 기발한 독법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승니문답’ 267절 배

트남어 번역본에 ‘Trong kinh có thuyết: “Nhung Dịch thị ung”’이란 표현은 고전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읽어 번역할 때 ‘경서에 이르길 “농딕티웅”이라 한다.’ 외에는 대안이 없다. 쓰놈 원문을 본다면 ‘농딕티웅’은 ‘용적시웅(戎狄是膺)’이라 되어 있을 것이다. 끌로딘은 이 ‘용적시웅’을 ‘야만인들을 때려 부숴라!(Smite the barbarians)’라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어투로 번역했다. 동의되는 바이다. 그리고 그녀는 ‘용적시웅’의 출처가 『시경(詩經)』임을 밝히고 있다. ‘하선십영’ 중 첫 시문 ‘파도를 막고 있는 황금 섬(金嶼攔濤)’은 원래 전설 속의 ‘용문(龍門)’을 상징하는 것으로 끌로딘은 해석했다(127-129쪽). 문맥으로 보아 근거가 충분하다. 그러나 완거정의 답시에 의해 원개념은 무시된 채 해변의 아름답고 안전한 보호구 정도로 재형상화(reimagining) 된다는 게 그녀의 분석이다. 이런 설명 속에서 완거정의 시에 등장하는 정위(精衛, 정위 새)라든가 여룡(驪龍, 검은 용)은 헛된 노력의 상징인 정위 새(鳥), 보물의 수호자로서 질투심 많은 검은 용임이 밝혀진다. 막천사가 은근히 자신과 일체화하고자 했던 용은 정위 및 여룡으로 재형상화되는 것이다. 두 개 시어의 출처가 각각 『산해경(山海經)』이며 『장자(莊子)』임을 알게 되는 것도 그녀 덕분이다(193-195쪽). 저자를 따라가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완거정이 막천사에게 보낸 시문이 하띠엔 즉 ‘용문’(막천사의 염원에 따르자면)을 겨누는 포문(砲門)이었던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주석서처럼 보이되 독자들에게 부여하는 역사적 영감이 의외로 크다.

저자의 문학 능력과 고전 지식에 대한 과시는 지겨움을 느끼는 지경에까지 독자를 몰고 가기도 한다. 18세기 메콩 델타는 남지나해와 삼 만에 인접한, 밝으면서도 발달한 수향의 변계(Water Frontier)였다.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 독자를 기원(紀元)을 넘나드는 까마득한 과거, 어두침침하고 황토바람 날리는 중원 땅 고전 속으로 너무 오래 끌고 다니는 건 차라리 고문에 가깝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건

주석서지 역사서가 아니야!’라 외치며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 때가 많다. 하지만 저자는 문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을 적절한 간격을 두고 요령 있게 배치해 두었다. 그러니 지겨운 곳도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은 설령 설령 넘겨 버리며 읽어도 된다는 말이다.

이 책 초반부에는 눈길을 끄는 언어 규정이 있다. 그녀는 ‘문(文)’의 의미를 두 가지로 명확히 대별한다. 첫째는 당연히 글(writing)이다. 둘째는 문양 또는 양식(pattern)이다(19쪽). 나는 그녀의 설명 덕분에 우리가 술하게 사용하되 의미는 중구난방인 ‘인문(人文)’과 관련해 큰 배움을 얻었다. 인문은 ‘천문(天文)’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천문이 하늘의 패턴이라면 인문은 인간의 패턴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다(16쪽). 나는 그동안 인문학을 인간 창조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사회과학이 살아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역사학의 대상은 죽어 누워 있는 사람들이다. 사료를 통해 그 죽은 자들을 과거 속에다 살려 놓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 역사가의 일이다. 문학은 상상력과 숙련된 언어 기교를 통해 가상의 인간 세계를 만들어 낸다. 철학은 인간의 기원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 심성, 행위 성향 등을 사유와 논리를 통해 창조한다. 물론 이 역시 글로써이다. 그래서 문, 사, 철로 대별되는 인문학(Humanities)은 ‘문(writing)’으로써 ‘인’을 창조하는 학문으로 나는 여겨왔던 것인데, 이제 나는 약간의 수정된 정의를 준비하게 되었다. 인문학에서 ‘인문’이 인간 세계의 패턴이라면 그 패턴은 문학가, 역사가, 철학자에 의해 의도되어 써진 패턴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문학은 인간 패턴 창조(각각 과거, 허구, 사유의 공간 속에) 학문이다. 이 창조된 패턴이 살아있는 자들을 움직이고 종종 세상을 바꾸기도 해 왔다.

글자(문)를 부리는 자의 의도된 패턴(시문)은 그래서 역사의 근거

(사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역사 그 자체로서 지위를 부여받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을 보자면, 현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팡아이가 전혀 드러남 없이 시간과 지리의 배경이 각각 ‘18세기’ ‘메콩 평원들’일 뿐이다. 그런데 왜 책의 절반이 팡아이에서의 형편에 기초한 ‘승니문답’ 분석에 할당되었는가?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구성의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미리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1부 3개의 장을 건성건성이라도 넘기다 보면 ‘승니문답’의 내용은 곧 뒤따를 메콩 델타 경략의 전주곡이었음을 알게 된다. 총 270절로 이루어진 ‘승니문답’을 저자는 세 개의 주제로 분류해 세 장을 구성했다. 서술의 시작은 타락한 승려와 아직은 온전해 보이는 여승(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감지되기는 하나) 사이의 염기(艷氣) 짙은 문답으로 열린다. 제3장의 종결부에서 승려는 두려움에 떠는 변방의 가련한 백성으로 전락한다. 여승은 “야만인들을 때려 부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영웅으로 승화된다. 저자에 따르면 “여기서 여승은 승려와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서 도전하고 자기의 호소를 따라 전진할 만큼 용감해지라고 채근한다.”(113쪽)는 것이다. 이 시의 중간부 즉 제2장을 채우는 수많은 고전의 사례는 남녀 사이의 은밀한 염정을 국가적 사업의 진행으로 상승 전환하게 하는 재료들이다. 과거 속의 다양한(그러나 선별된) 패턴들이 현재(1750년대)의 행동을 조종하는 게 눈에 뜨인다. 변화된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은 미래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승니문답’은 끝로던에 의해서 역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승니문답’이 창작된 건 1750년이였다. 이로부터 3년 뒤에 무왕(武王, 1738-1765)은 메콩 델타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고¹⁾ ‘승니문답’을 쓴 완거정이 전선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완거정이 팡아이

1) 이와 관련해 나는 다음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동남아시아연구』 27권 2호, 2017)

에 근무하게 된 건 원거주민인 석벽만(石壁蠻)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에 그가 싸워야 했던 대상은 부패한 관리, 비효율적 행정 및 군사 체제였다. 여기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승니문답’이 창작된 것인데,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는 팡아이에서의 해결책에만 머물지 않고 메콩 경략이 있음을 끌로딘은 강조하고 있다. 258, 259, 260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258: 낙토는 아직 저 멀리 있다. 그곳은 매우 까마득하다. 신령한 사원은 아직 멀리 있다. 아주 아주 멀리. 259: 서쪽 방향으로 이어질 길이 없다. 북쪽으로는 길이 매우 어렵다. 260: 남쪽이라, 그쪽은 아주 멀지 않다. 많은 다바익(Đá Vách)(석벽만의 베트남어) 도적 떼들이 두려울 뿐이다.”(107쪽) “야만인들을 때려 부숴라!”는 여승은 남쪽으로의 진출(남진)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건 무왕과 완거정이 구상한 패턴이기도 했다.

저자의 열정적 주석 작업은 ‘하선십영’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제4장에서 다시 빛을 발한다. 끌로딘이 주장하는 요체는 중국으로부터 온 이주 집단의 새로운 거점이 된 하띠엔 주변의 자연물들이 막천사의 글을 통해서 문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섬, 산, 절, 성벽, 동굴, 절벽, 호수 등은 시문을 통해 문명권 안으로 포섭되었고 이를 통해 문명화된 하띠엔이 재구성되었다고 주장된다(127쪽). 이 책 표지 디자인의 핵심인 등용문(登龍門) 그림이 상징하듯, 용문을 오르는 데 성공한 잉어들은 용이 되었다. 글을 통한 문명화는 곧 등용문의 현실화인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개 장의 내용은 엄정하며 냉혹하다. 저자는 5장에서 ‘실록’의 기사와 함께 완거정이 막천사와 왕래한 편지 글 두 개를 소개하고 있다. 6장에서는 막천사의 시문들이 완거정에 의해 어떻게 무자비하게 성형 수술되는 지를 보여준다. ‘실록’ 중 완거정의 약사를 담고 있는 ‘열전’에는 양자 사이에 글 교환이 있었음이

짙막하게 언급되고 있다. 치열한 싸움을 통해 ‘야만인들[크메르인]을 때려 부수고’ 메콩 델타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기사 뒤에 나오는 말이다. 새 땅에서의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완거정은 아직까지는 ‘새 땅’ 외곽에 있던 하띠엔의 지배자 막천사와 서신, 시문을 교환했다.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찾아온 비교적 안온한 휴식 상태에서의 문학적 한담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끌로딘 덕분에 명확한 맥락으로 드러나게 된다. 일반적인 사료에서 제공하지 못한 역사적 실체가 시문 속 글자들의 배후에서 들추어진 것이다. 문자 교환은 “막천사의 자율적 근거지가 점차로 당쥡(남국)의 확장되는 영향력 안으로 흡수되는”(190쪽) 과정이었다. 용이 되고자 한 막천사에게 정의 새나 검은 용이 되는 길을 보여주는 건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 내가 보기에 하띠엔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중국인(또는 그 후예) 막천사 집단은 여차하면 ‘야만인들’이 되어 ‘때려 부수어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다. 문명과 야만은 동전의 앞뒷면인 경우가 많다. 핑아이에서 창작된 시문을 통해 메콩 델타 경략 시 그날이 올랐고 델타 흡수 뒤, 그 델타의 외곽을(하띠엔은 델타 바깥에 위치함) 완거정은 시문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델타와 이 외곽을 합친 것이 바로 끌로딘의 플레인즈였다. 이후 보이는 막천사의 무조건적 충성(남국 조정을 향한)을 거쳐 약 반세기 이후 하띠엔에서 막씨 지배는 종결되고 그 ‘문명’의 땅은 완전히 베트남 ‘문명권’으로 흡수되었다. 델타를 차지하게 된 건 핑아이의 시문에 근거하고(시 같은 변환) 하띠엔을 복종시키고 남부베트남의 일부로 만든 건 시문에 의해서였기에(시를 활용한 변환) ‘Poetic Transformation’이라는 제목이 문제 있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묘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말로의 번역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 사료로 사용되었기에 ‘승니문답’과 ‘하선십영’은 역사적(historical)이다. 역사적 변화가 시적이라는 데서, 게다가 등장하는

두 인물이(완거정, 막천사) 모두 시인이어서 이 시대의 변화를 가히 시적 역사(poetic history)라고 부를 만하다. 그런 과거, 즉 또 하나의 패턴을 끌로딘은 충실히 재구성했다. 그런데 ‘승니문답’과 ‘하선십영’으로 유발된 변화의 크기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 이상으로 컸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사료로 인용된 두 가지 시문의 위상은 역사적(historical) 이상으로 역사적(historic)이게 되었다.